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연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압촌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통해라! ‘통통’ 리더십

〈일선현장과 소통, 내부직원과 소통〉

금융 리더들의 ‘소통 경영’ 눈에 띄네

위성호 신한은행장, 중소기업들 고충 공유
 윤종규 KB금융 회장, 직원과 ‘도시락 오찬’
 급변하는 금융권 환경 속 현장목소리 청취



현장경영 및 내부소통으로 대표되는 금융권 리더들의 ‘소통 경영’ 행보가 눈에 띈다.

금융 급변하는 금융권 환경에서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함과 동시에 조직을 한층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선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경영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리더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과의 만남에 나서는 등 영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업계 현안을 들었다. 또 경기지역 산업공단 내 중소·중견 기업고객 대표들과 오찬 세미나를 열고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공유했다. 위 행장은 “기업의 성장주기에 맞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다”



금융권 리더들의 ‘소통 경영’ 행보가 눈에 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왼쪽 사진 오른쪽)이 경기도 안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사내 직원 기자단과 함께 한 ‘CEO와의 대화’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왼쪽 사진 오른쪽)이 경기도 안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사내 직원 기자단과 함께 한 ‘CEO와의 대화’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장경영에 나섰다.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CEO초청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또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을 방문해 서민금융 점포인 희망금융플라자에서 일일상담도 진행했다. 이밖에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직접 태블릿PC를 들고 서울 동대문종합시장에서 고객들을 만나는 등 현장경영을 몸소 실천 중이다.

●내부 직원과의 소통으로 조직 다지기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연말 인사에 앞서 인사원칙을 사전 공개하는 등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직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토크 콘서트’ 시간을 갖고 소

통을 통해 직원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내 직원 기자단과 ‘도시락 오찬’을 갖고 KB금융의 비전·현안·경영전략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내비쳤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리더들의 내부 소통은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목적”이라며 “직원들 간 유대감 강화 및 사기 진작은 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빙그레, 日도토루 협업 “커피음료시장 1위 수성”

합작 첫 작품 ‘도토루 컵 커피’ 출시

빙그레가 일본 1위의 카페 체인 도토루 커피와 손잡고 국내 펌트(PET) RTD커피(바로 마실 수 있게 포장된 캔·컵·병 형태의 커피) 시장의 정상 수성에 나섰다.

박영준 빙그레 대표이사와 호시노 마사노리 도토루 커피 사장은 15일 빙그레 본사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다. 빙그레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펌트(PET) RTD커피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의 제품 개발 및 유통 노하우와 일본 최대급 커피 브랜드 도토루 커피의 사업 역량이 결합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양사는 협업 첫 작품으로 ‘도토루 컵 커피’(250ml)를 공동개발해 내놓았다. 양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종합해, 드립 추출액으로 부드러운 맛과 풍부한 커피 전문점의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바닐라라떼, 카페라떼 2종으로 출시됐다.

1962년 창립한 도토루 커피는 커피배전 전문기업으로 일본에서 약 14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엄선된 품질의 원두를 반세기째 걸쳐서 축적된 도토루 커피만의 로스팅 기술로 커피의 향과 맛을 극대화해 커피브랜드 중에 3년 연속 고객만족도 조사 1위를 기록했다.

●아카페라 커피도 인기, 올해 300억 매출 예상

빙그레는 2008년 펌트(PET) 커피인 ‘아카페라’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브라질 세하도 지역 최고 등급 NY2 원두를 사용해 깊고 풍부한 맛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용량을 350ml로 증대해 가성비를 더욱 높인 ‘아카페라 사이드업’을 출시하는 등 커피 음료 시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커피전문점 톨사이즈와 비슷한 ‘아카페라 사이드업’의 매출 호조에 힘입어 빙그레는 올해 전년 대비 약 30% 성장한 3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올해 커피 시장은 전년



빙그레는 일본 도토루와 지난 15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공동 개발한 ‘도토루 컵 커피’ 2종을 출시했다. 부드러운 맛과 깊은 커피 전문점의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 빙그레

대비 약 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냉장 유통 컵타입 제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번 양사간 협업을 통해 앞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7일

코스피지수	2436.67	▲	+9.33
코스닥지수	791.95	▲	+29.74
日 닛케이 지수	2만2911.21	▲	+18.52
中 상하이 종합	3275.78	▼	-30.34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5	▲	+0.02
환율 (원·달러)	1074.50	▼	-1.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4386.41	▲	+168.41

오늘의 얼굴

빛썸, 전수용 신임 대표 선임



전수용(사진) 전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빛썸의 신임 대표에 선임됐다. 전 대표는 고도소프트와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등

최고경영자(CEO)를 거친 핀테크 전문경영인이다. 빛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조직과 시스템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은 물론 핀테크 금융시장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최적인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전 대표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내 자신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보다 성숙하고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빛썸이 앞장서 모범거래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 TALK TALK

●“스스로 오너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해달라” (구자열 LS그룹 회장, 지난 26일 서울 한 식당에서 신임임원 18명과 만찬을 하며)

●“총수일가 이사들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 27일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이 가결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이 0.39%에 그치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육해공 전군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27일 ‘청년장병 진로취업 도움사업’ 시범부대인 경기 양주 육군 26사단을 방문해)

데이터 경제

직장인 10명 중 3명 ‘가상화폐 투자’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3%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3명이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셈이다. 투자 이유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어서(54.2%,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적은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해서’(47.8%),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 같아서’(30.8%), ‘투자 방법이 쉬워서’(25.4%), ‘현실 탈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14.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58.7%는 ‘비트코인 투자 열풍’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가상화폐 투자 이유

※자료:사람인



평창 패딩 이어 한정판 올림픽 교통카드·패스

평창패딩, 평창스니커즈 등 올림픽 한정 상품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이제는 평창동계올림픽 교통카드와 패스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코레일,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는 관광과 교통 혜택이 결합된 올림픽 한정판 교통카드와 패스 3종을 출시한다.

내국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서울-강릉 패스’는 3일권(10만원), 5일권(16만8000원) 두 종류로 올림픽 기간(1.3~3.31 예정, 설 대수송기간 제외)에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혜택은 ▲서울-강릉 고속철도(KTX) 및 영동·태백선 일반열차 임석(자유석) 이용, ▲강원도 지(G)서를 탑승권 증정, ▲강원 관광지 스탬프 투어 올림픽 기념품 증정 등이 있다.

외국인 전용 ‘평창코레일패스’는 5일권(16만8000원)과 7일권(19만5000원)으로 역시 올림픽 기간(2.1~3.25)에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혜택은 ▲전국 철도 무제한 이용(KTX, 새마을, 무궁화, ITX 청춘, 5대벨트 관광열차), ▲6개 도시(서울, 부산, 제주, 인천, 광주, 대구) 시티투어, ▲관광자료집 제공, ▲충전형 교통카드(레일플러스 카드) 증정 등이다.

‘코리아투어카드 2018’은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로서, 올림픽을 계기로 방문한 외국인이 선불 충전해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환승도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178개 제휴업체 2240개 매장에서 할인혜택과 선불증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인구와 부동산의 미래’ 출간

이전 50년의 인구 변화를 살펴 앞으로 10년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이야기한 책이 출간됐다. 신간 ‘인구와 부동산의 미래’(사진)는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인구 감소라는 주제를 부동산 투자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대응책을 소개한다.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을 20여 년 동안 지켜봐 온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인구 변화와 함께 어떻게 부침을 거듭해 왔는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방철하게 분석했다. 눈앞에 다가온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자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질문을 던지며, 미래 부동산 시장 변화와 투자의 방향을 제시한다.

정용우 기자

KT 5기가급 와이파이 상용화



KT는 기존 기가 와이파이보다 3배 가량 빠른 5기가급의 차세대 와이파이 상용 AP를 개발해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와 강남 KT 에비뉴에 구축하고 27일부터 일반 고객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세대 와이파이의 최대 속도는 4.8Gbps다. 또 기존 와이파이의 약 3배에 해당하는 무선 용량을 보유해 많은 소비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고품질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KT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도 차세대 와이파이 AP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넥스 ‘엑스’ 300만 다운로드 돌파

넥슨은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엑스’가 누적 다운로드 300만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엑스는 9월14일 출시 후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인기순위 1위에 올랐다. 또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2위, 앱스토어 최고매출 1위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넥

슨 자체 개발 지적재산권(IP)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넥슨은 300만 다운로드 돌파를 기념해 29일까지 게임에 접속하는 유저 전원에게 300만 골드와 전설 방어구 선택권 3개 쿠폰을 지급한다. 또 연말을 맞아 강화보호권 10개와 신규 영웅 정력석 3개를 30일과 31일 양일간 지급한다.

김명근 기자

신한은행, 28기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신한은행은 1월 3일까지 전국 대학생(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제28기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사진)를 모집한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100명을 선발하며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활동한다. 소외 계층 금융교육 지원, 영업점 일일체험 등 대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와 신한은행 브랜드 홍보, 사회봉사, 새로운 금융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객과 은행의 매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해외문화탐방 기회 및 신한은행 입행 전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빈 기자